*사진 출처 : 안양감리교회

numbers

vol. 346 | 2026.8.18.

다음세대 사역 종합지표

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만 복음에 대한 확신 있다!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성인 스마트폰 사용 실태
2. 고령층(55~79세)의 취업 실태

넘버즈 칼럼

과부하된 삶에 선포하는 거룩한 멈춤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만 복음에 대한 확신 있다!

가족 종교화 심화 현상, 출산율 감소 등 다음세대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목회데이터연구소와 (사)꿈이있는미래가 함께 다음세대 트렌드를 조망하는 프로젝트를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 거의 1년간 기획·진행했다.

그 결과 최근 출간된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2026.05.)」은 다음세대와 관련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등 7개 집단(총 3,308명)을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광범위한 조사물이다. 아마도 다음세대 관련 집단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다음세대 전문가 10명이 주제별 데이터를 근거로 지필한 국내 유일한 책일 것이다.

이번 〈넘버즈 346호〉에서는 세부 주제(10개)를 다루기 앞서, 현재 다음세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다음세대 사역 종합지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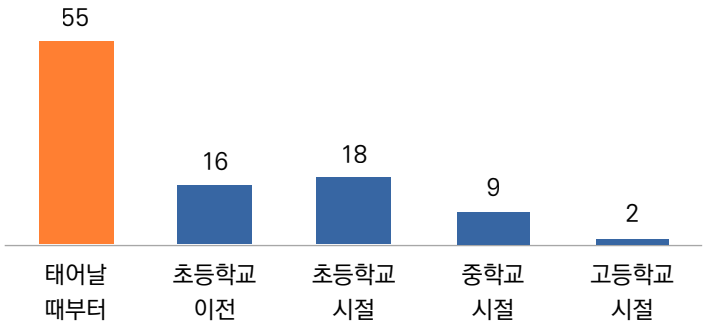
구분	내 용				
	일반 학생	학부모	담임목사	사역자	교사
조사 대상	만 14세~19세 개신교인 학생 (교회 출석 학생)	만 14~19세 자녀를 둔 개신교인 부모 (교회 출석자)	교회학교 부서가 있는 한국교회 담임목사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 (사역자)	한국교회 교회학교 담당 교사
표본 규모	총 500명 (유효표본)	총 600명 (유효표본)	총 500명 (유효표본)	총 300명 (유효표본)	총 435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지역/성/학급별 비례할당 추출 (자녀기준)* 비례할당 추출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2025년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함.		편의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4.4%p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4.0%p	-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온라인 조사(이메일 및 카톡을 통해 URL발송)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6년 01월 22일~02월 06일			2026년 01월 22일~02월 02일	2026년 01월 19일~02월 28일
조사 의뢰 기관	(사)꿈이 있는 미래(꿈미) /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01 [다음세대 신앙]

교회학교 학생, 절반 이상(55%)은 모태신앙!

- 교회 출석 중고생에게 교회 출석을 언제부터 했는지 물은 결과, '태어날 때부터'가 55%로 가장 많았다. 교회학교 중고생 절반 이상은 모태신앙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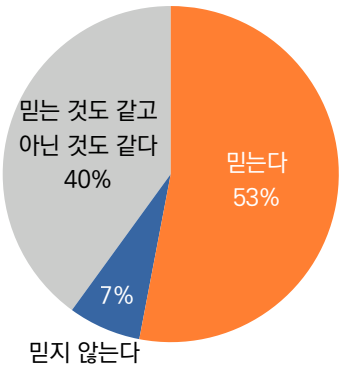
[그림] 교회 출석 시작 시기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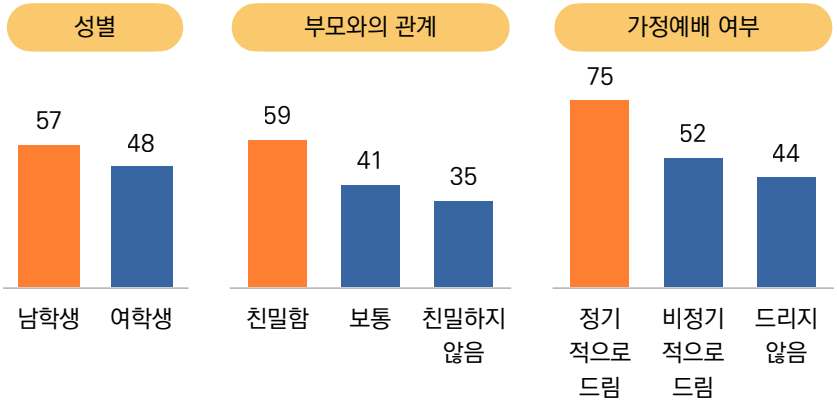
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만 복음에 대한 확신 있다!

-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 여부를 물은 결과, 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53%)만이 확신이 있다(믿는다)고 응답했다.
- '믿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성별로는 남학생(57%)이 여학생(48%)보다 높았다. 또, 부모와 친밀한 관계이거나(59%),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경우(75%)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 여부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그림]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 있다(믿는다) 비율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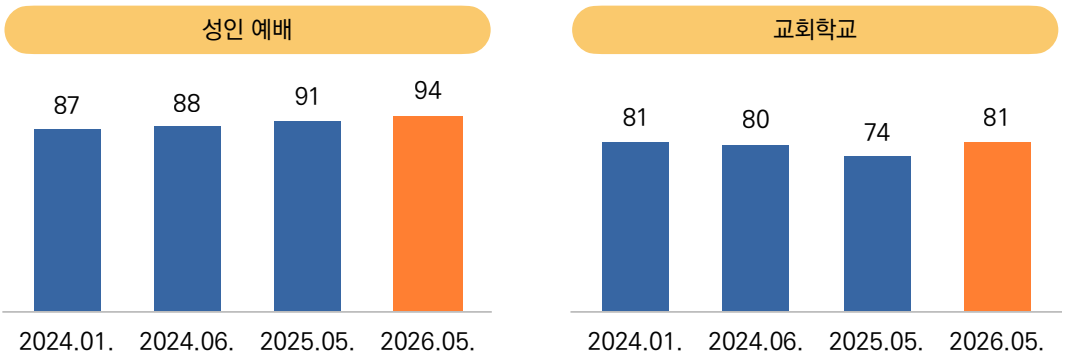


02 [다음세대 예배/회복도]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예배 회복도, 성인과 비교해 크게 낮아!

- 코로나 이전(100%로 가정) 대비 성인 예배와 교회학교 예배 참석률을 살펴본 결과, 성인 예배는 2024년 80% 후반대에서 2026년 5월 94%까지 꾸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교회학교는 2024년 1월 81%, 2026년 5월 81%로 정체상태에 있으며, 성인 예배 대비 회복률이 크게 낮았다.

[그림]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참석률 (담임목사, 평균,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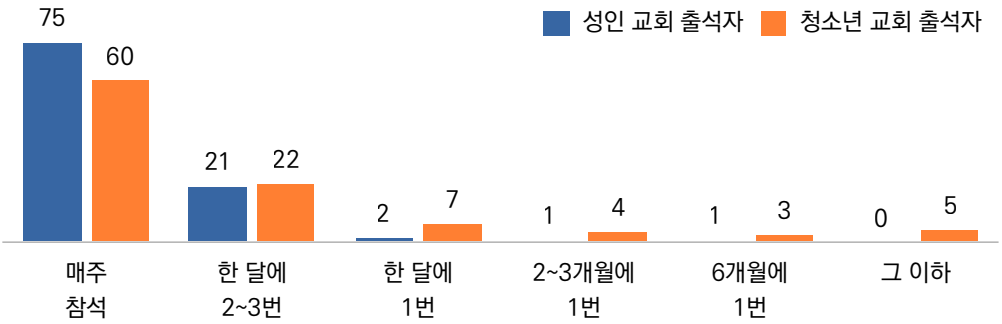


※출처 : 목회데이터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7', 2026.05.(전국 교회 담임목사 500명, 모바일 조사, 지앤컴리서치, 2026.05)

매주 주일 예배 출석률, 청소년이 성인보다 크게 낮아!

- 주일 예배 출석 빈도를 성인과 청소년(중고생)을 비교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교회 출석률이 성인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매주 참석률'을 보면 성인 교회 출석자는 75%인데 반해, 청소년은 60%로 15%p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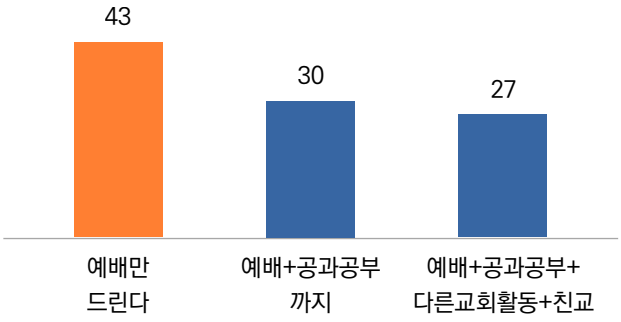
[그림] 주일 예배 출석 빈도 (성인 vs 청소년, %)



교회학교 학생 43%, 예배만 드리고 간다!

- 교회 참여 형태를 학생들에게 물었다. '예배만 드린다'가 4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예배+공과공부까지' 30%, '예배+공과공부+다른 교회활동+친교' 27%로 응답했다.
- 최소한의 교회 활동인 '예배'만 참여하고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이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교회 참여 형태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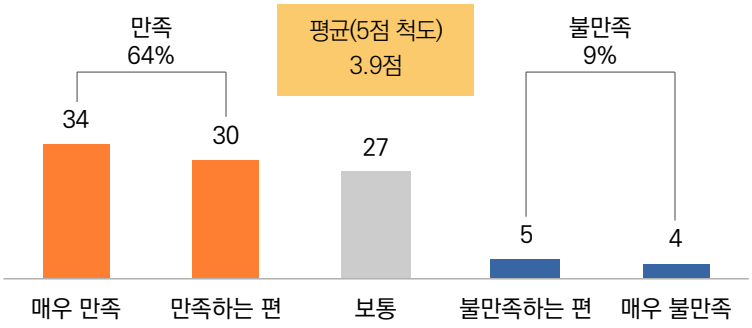


03 [교회 만족도]

교회 출석 중고생 3명 중 2명 가까이, 전반적 교회 생활 만족!

- 전반적인 교회 만족도를 교회 출석 중고생에게 물은 결과, 만족(매우+약간) 64%로, 3명 중 2명 가까이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에 3.9점, 즉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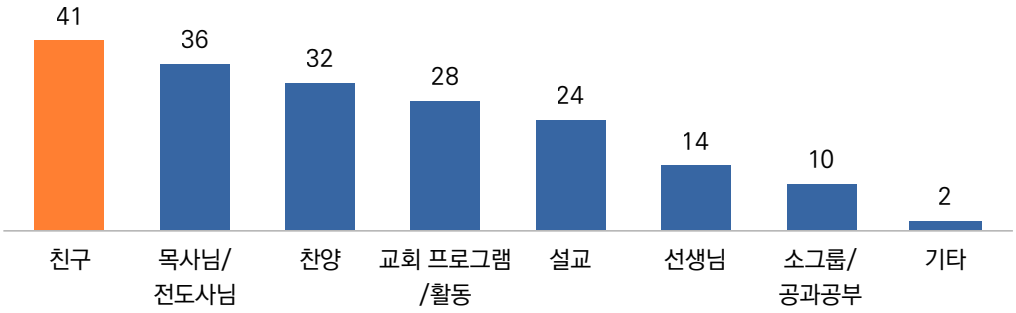
[그림] 전반적 교회 만족도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교회 만족 이유 top3, 친구·교역자·찬양!

- 교회에 만족하는 중고생을 대상으로 만족 이유를 물은 결과(1+2순위), '친구'(41%), '목사님/전도사님'(36%), '찬양'(32%)이 각각 1~3위를 차지했다. '친구' 요인이 청소년 사역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데이터이다.
- 반면 '교사'를 꼽은 비율은 14%에 그쳐, 교사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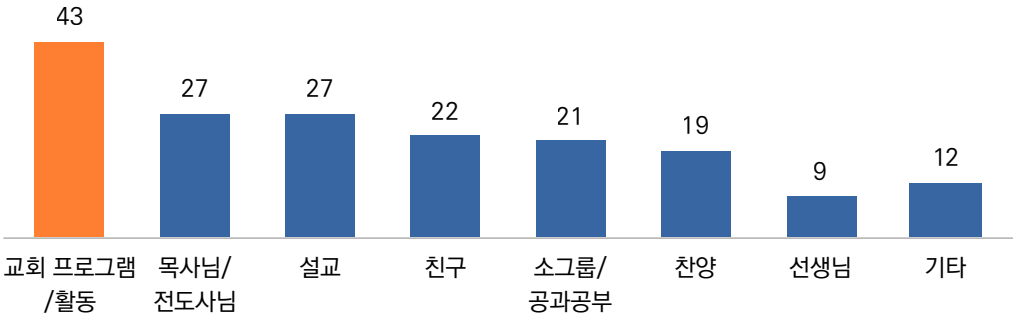
[그림] 교회 만족 이유 (교회 만족 중고생, 1+2순위, N=319, %)



교회 불만족 이유, 교회 프로그램/활동!

- 교회에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교회 프로그램/활동'(43%)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목사님/전도사님'(27%), '설교'(27%) 등의 순이었다.
- 학생들이 보다 흥미를 느끼고 집중할 수 있는 교회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사역자' 요인이다. 사역자(목사님/전도사님)는 만족 이유에서도 2위, 불만족 이유에서도 2위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 사역에서 '사역자' 요인이 그만큼 절대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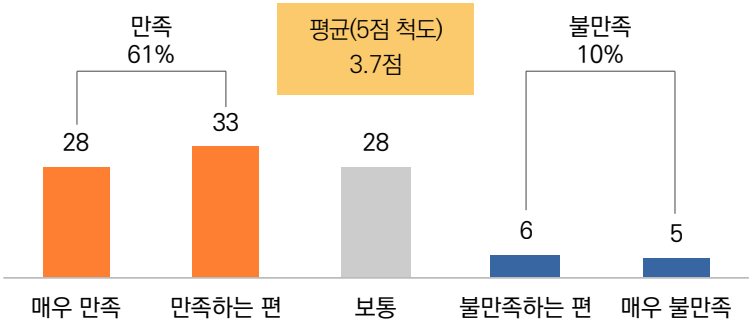
[그림] 교회 불만족 이유 (교회 불만족하는 중고생, 1+2순위, N=44, %)



교회학교 학생들의 교사 만족도, 교회 만족도보다는 다소 낮아!

- 교회학교 교사에 대한 만족도를 물은 결과, 교회학교 학생 61%는 '만족(매우+약간)'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은 10%에 그쳤다.
- 다만 앞서 언급한 '교회 전반적 만족도'(64%)보다는 '교사 만족도'(61%)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그림] 교사 만족도 (교회 출석 중고생, N=5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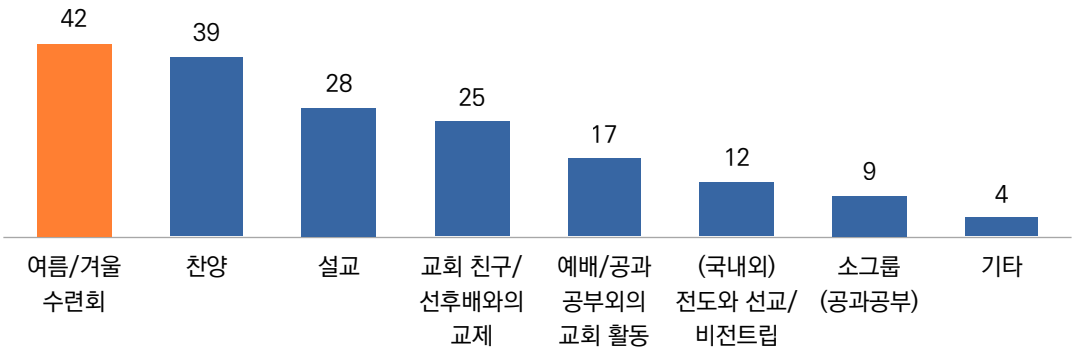


04 [신앙 성장 요인]

신앙 성장 촉진 요인, 수련회/찬양!

- 교회학교 중고생을 대상으로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 요인을 물은 결과, '여름/겨울 수련회'(42%)와 '찬양'(39%)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설교'(28%), '교회 친구/선후배와의 교제'(25%) 등의 순이었다.
- 청소년들의 신앙적 자극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수련회 프로그램의 내실화와 찬양 사역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초부터 자녀의 수련회 참석을 위해 부모를 설득하는 작업도 매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신앙 성장 촉진 요인 (교회 출석 중고생, 1+2순위, N=500, %)



넘버즈 인사이트

이번호 요약

1. 교회학교 학생, 절반 정도만 복음에 대한 확신 있다!

기독교 복음에 대한 확신 여부를 물은 결과, 교회학교 중고생 절반 정도(53%)만이 확신이 있다고 응답했다.

2. 교회 만족 이유 top3, 친구·교역자·찬양!

교회에 만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 이유를 물은 결과(1+2순위), 친구(41%), 목사님/전도사님(36%), 찬양(32%)이 각각 1~3위로 상위권에 랭크됐다.

3. 신앙 성장 촉진 요인, 수련회/찬양!

신앙 성장에 도움 요인을 교회학교 중고생에게 물은 결과, '여름/겨울 수련회'(42%)와 '찬양'(39%)을 가장 높게 꼽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신앙을 심는 부모 코칭 30일 (두란노서원, 신형섭 저)

관련 성경 구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목회 적용점

이번 다음세대 사역 종합지표는 한국교회 다음세대의 위기가 단지 인구 감소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내실과 교제·프로그램의 한계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회학교 학생의 절반 정도(53%)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고, 공과공부나 교제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는' 비율이 43%에 달하는 상황은 다음세대 사역의 중심축을 단순 출석에서 '신앙의 내실화'로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청소년들의 영적 확신을 세우는 데 전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조사에서 나타났듯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59%)나 정기적인 가정예배(75%)가 복음 확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회가 가정과 적극 연계하여 '가정예배 강화' 등 다음세대 신앙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아울러 학생들이 신앙 성장의 가장 큰 촉매로 꼽은 '수련회'(42%)와 '찬양'(39%) 사역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동시에,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교사 및 프로그램 영역의 변화/보완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만족을 느끼는 핵심 요인이 친구와 교역자, 찬양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현장 교사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친교 환경을 구축할 때 비로소 다음세대 사역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수련회와 관련 연초부터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학생들이 공부와 학원을 뒤로하고 수련회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1. 성인 스마트폰 사용 실태

2. 고령층(55~79세)의 취업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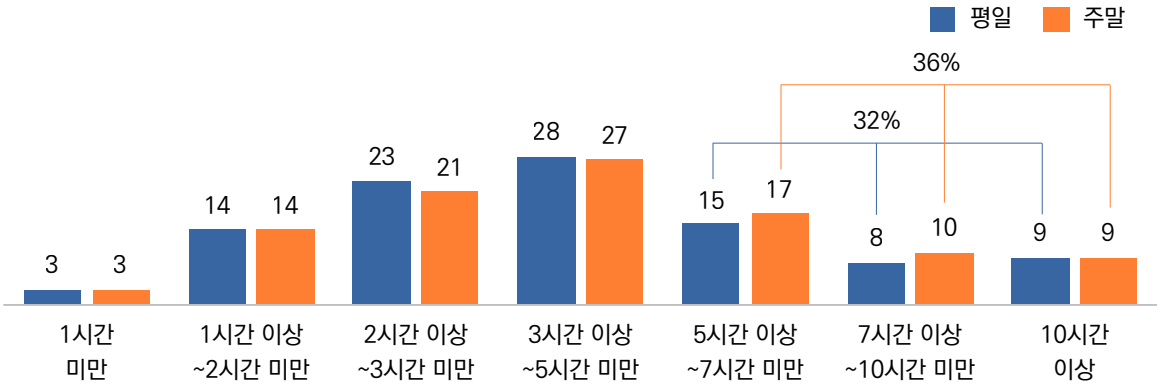
[넘버즈 칼럼]

과부하된 삶에 선포하는 거룩한 멈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 스마트폰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사용!

- 우리나라 만 13세 이상 일반 국민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99%(한국갤럽, 2026.06)에 달하며 스마트폰은 일상의 필수재로 자리 잡았다. 이에 한국인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한국리서치)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 우리나라 성인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체감 사용 시간은 평일/주말 모두 ‘3시간 이상~5시간 미만’(각각 28%, 27%)이 가장 많았다. 특히 5시간 이상 사용자 비율만 보면 평일 32%, 주말 36%로 나타나, 성인 3명 중 1명 정도는 매일 5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스마트폰 하루 평균 체감 사용 시간 (2026,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최근 1주일 기준,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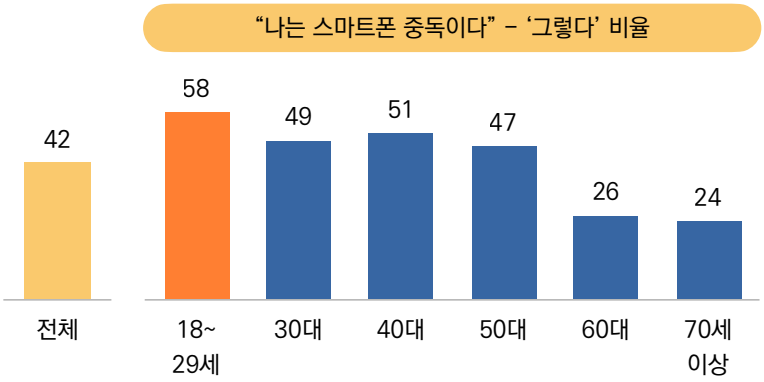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스마트폰 없는 완벽한 하루는 가능할까?-스마트폰 의존과 디지털 디톡스 실태, 2026.08.04.(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3.27.~03.30.)

성인 10명 중 4명(42%),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 느껴’!

- 본인 스스로 스마트폰 중독이라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성인 10명 중 4명가량에 해당하는 42%가 ‘그렇다(매우+약간)’고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18~29세’가 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스스로 중독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20%대로 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스마트폰 중독 자가 평가 (2026,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스마트폰 중독 ‘매우+약간’ 동의율*, N=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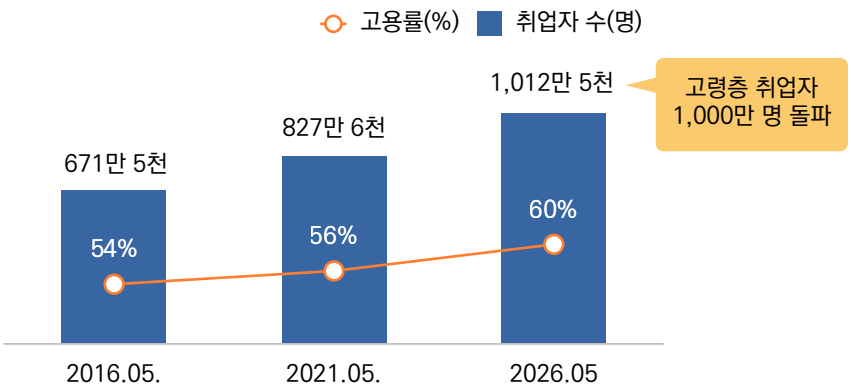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스마트폰 없는 완벽한 하루는 가능할까?-스마트폰 의존과 디지털 디톡스 실태, 2026.08.04.(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6.03.27.~03.30.)

*4점 척도

고령층(55~79세) 취업자, 통계 작성 이래 처음 1,000만 명 돌파!

- 최근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서 고령층(55~79세)의 취업 관련 특성을 분석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주요 결과를 살펴본다. 2026년 5월 기준, 일하는 55~79세 고령자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고령층 고용률 또한 60%를 기록해, 해당 연령대 인구 10명 중 6명이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고령층(55~79세) 취업자 수와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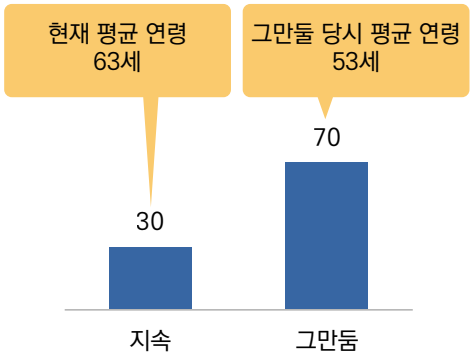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6.08.05.
*고령층(55~79세) 고용률 = 취업자 수/55~79세 인구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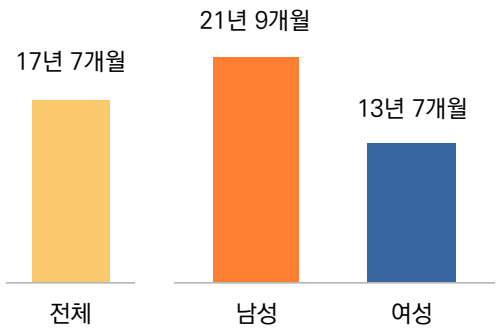
가장 오래 일한 직장, 평균 53세에 그만둬!

- 고령층(55~79세) 취업 경험자 중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비율은 70%였고, 그만둘 당시 평균 연령은 53세로 나타났다. 반면 계속 근무 중인 비율은 30%(현재 평균 63세)였다.
-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7개월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성(21년 9개월)이 여성(13년 7개월)보다 8년 2개월 더 길었다.

[그림] 현재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지속 여부
(2026.05. 기준, 고령층 취업 경험자의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기준, %)



[그림]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평균 근속 기간
(2026,05. 기준, 고령층 중 취업 경험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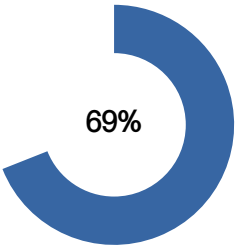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6.08.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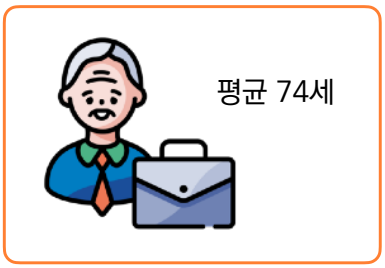
고령층 10명 중 7명, ‘계속 일하고 싶다’!

-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자(55~79세) 비중은 69%로 10명 중 7명꼴이었으며, 이들이 희망하는 은퇴 시점은 평균 74세로 집계됐다.

[그림] 장래 근로 희망 (‘계속 일하고 싶다’)
(2026.05. 기준, 55~79세 고령층)



[그림] 장래 근로 희망자의 희망 은퇴 시점
(2026.05. 기준, 장래 근로 희망하는 55~79세 고령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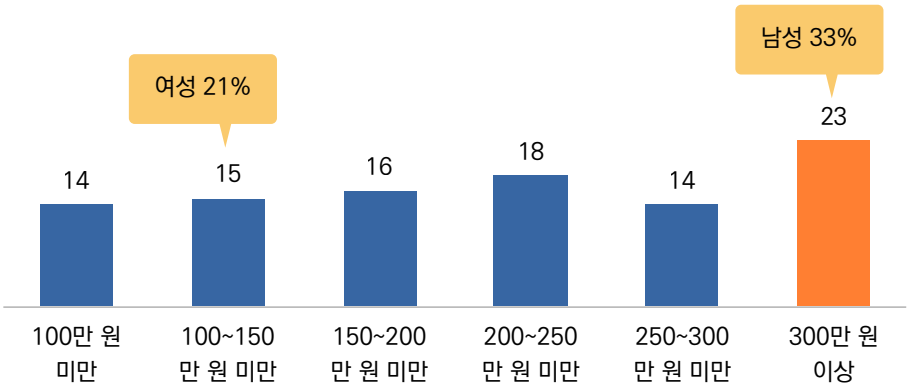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6.08.05.

고령층 희망 임금 ‘300만 원 이상’(23%)이 가장 많아!

-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고령층(55~79세)의 희망 임금 수준은 ‘300만 원 이상’이 2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200~250만 원 미만’(18%), ‘150~200만 원 미만’(16%) 등의 순이었다.
- 성별에 따른 온도 차도 확인됐다. 남성은 ‘300만 원 이상’(33%)에 가장 많이 응답한 반면, 여성은 ‘100~150만 원 미만’(21%)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림] 희망 임금 수준 (2026.05. 기준, 장래 근로 희망하는 55~79세 고령층, %)



※출처 :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26.08.05.

과부하된 삶에 선포하는 거룩한 멈춤: 서킷 브레이커

강영롱 목사
(대구 삼덕교회)

집안의 차단기, 시장의 차단기

얼마 전 새로 알게 된 말이 있다. '서킷 브레이커'. 불볕더위가 계속되니 늘 사용하던 냉장고, 텔레비전 같은 가전 외에도 각 방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 외출을 준비하는 아내는 안방 화장대 앞에서 고데기를 말고 막 머리를 감고 나온 남편은 세면대 앞에서 드라이기를 켰는데 그 순간 모든 게 멈추었다. 예전 같으면 집안 가장이 두꺼비집을 열고 납으로 된 퓨즈를 갈아 넣어야 했겠지만 요즘엔 한결 편리해졌다. 아파트 신발장 옆에 있는 뚜껑을 열고 아래로 내려간 전기 차단기를 올리면 되는데 이 차단기가 서킷 브레이커다.

지난 7월 말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서울 어느 동네에 대규모 정전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다. 주식이 급락할 때 거래를 일시 중단해서 시장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는 냉각기간을 주는 제도가 서킷 브레이커다. 서킷 브레이커가 가동되면 이십 분간 모든 주식 거래가 중단된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만 아홉 차례, 지난달 7월에만 네 번 발동했다. 특히 7월 마지막 주에 이틀 연속 코스피와 코스닥의 거래가 멈추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폭락의 이면, 상해 가는 사람들

그 주간 중앙일간지 머리기사는 온통 주가 폭락이었다. 한 일간지에서는 이를 특집으로 다루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라온 투자자들의 글을 전했다. "살려고 대출받아 주식을 했는데 희망이 없다. 삶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 "피 같은 중도금 3억 원을 이 종목에 다 날렸다.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 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계약했다. 중도금 지불까지 남은 기간에 레버리지 교육을 듣고 투기를 했다."

지난해부터 코스피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자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을 시작했다. 그동안 주식에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던 이들, 빠듯한 생계에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던 이들이 언제부턴가 초조해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러다 더 뒤떨어질까 봐 두렵다고 했고 평범하게 살면서 평생 노력해서도 넘볼 수 없는 차이가 이 시기에 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호황을 믿고 '빚투',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했다고 했다.

뉴스를 보다가 지인 한 사람이 떠올랐다. 그는 몇 달 전에 적금을 찾았다고 했다. 그는 주식엔 문외한이었다. 아버지, 어머니가 배운 대로 착실하게 월급의 일부를 은행 적금에 넣었다. 그래도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던 그가 어느 날 증시 호황으로 몇 배의 수익을 냈다는 동료 이야기에 허탈해졌다고 했다. 그래서 목돈을 찾았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본격적으로 해 보겠다고 했다. 문득 생각이 나서 당시 시황을 검색해 보니 그가 본격적으로 주식을 하겠다고 했던 때가 코스피가 정점에 있던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어떨까?

심란해하는 이들을 자주 본다. 이즈음 어수선해하고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을 더러 본다. 비단 주가 때문만이 아니다. 요식업을 하는 이들은 배달비를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울상을 지으며 이제 접을 때가 되었다고 했다. 사업을 하는 어떤 분들은 금리도 부담스럽고 돈이 안 돈다고 했다. 따박따박 월급을 받아온 이들은 모를 거라고. 피가 마르는 것 같다고 하는 이들도 있다.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연결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71호 (2026년 8월 2주)
-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세제개편안, 정책적 개입 수준, 주택 시장 안정화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186호 (2026년 8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외교정책 방향, 부동산 정책 평가

사회 일반

성인 10명 중 7명 "자녀는 둘 이상이 이상적"…현실은 1명
연합뉴스_2026.8.9.

일본에 호감 가진 한국인 54.3%…2013년 조사 이래 최고
연합뉴스_2026.8.3.

아이돌봄서비스 만족도 5점 만점에 3.9점…대기기간 평균 39일(종합)
연합뉴스_2026.8.13.

서울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7년새 월세 비중 7.8%p↑
연합뉴스_2026.8.17.

[기획] 스마트폰 없는 완벽한 하루는 가능할까? – 스마트폰 의존과 디지털 디톡스 실태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6.8.4.

2026「수저계급론」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6.8.11.

아동 • 청소년 •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살생각에 정서적 고립감·부정적 경험 영향"
연합뉴스_2026.8.17.

구직 포기한 2030… 10명 중 6명은 “구직 의사 없어”
국민일보_2026.8.18.

노인

서울에도 마트 없는 '식품 사막'... 어르신들, 장보러 왕복 2시간
조선일보_2026.8.16.

경제 • 기업

‘행복한 직장’ 1위 삼전닉스 아니었다…최고는 ‘이곳’
국민일보_2026.8.1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직장인 80% "기간제 차별 존재"…출산휴가·육아휴직도 '눈치'
연합뉴스_2026.8.16.
AI발 청년 비명…지난달 취업 19만명 줄어, 절반이 IT·전문직
중앙일보_2026.8.17.

국제 • 환경

홍콩 중상위층 '집 사느니 여행 간다'… 부동산 불패신화 '흔들'
조선일보_2026.8.12.

건강

[위클리 건강] 강아지 힐링 영상이 직장인 혈압·불안 낮췄다
연합뉴스_2026.8.15.
자도 자도 피곤, 살도 쪘다…만성피로인 줄 알았더니 '이 병'
중앙일보_2026.8.16.

기독교 • 종교

예장통합 전체 교인 5만명 감소… 세례교인은 늘어
국민일보_2026.8.12.
교인 감소·교회 소형화 흐름 지속…10년 새 59만 명 줄어
한국기독공보_2026.8.6.

기획기사 : [벼랑끝노인], 연합뉴스

①초고령층 절반이 빈곤…'가난한노후'에 갇힌 한국 _2026.7.27.
②"나이 많은 게 죄네"…'노인혐오'로 싹튼 불신과 배제 _2026.7.30.
③ 홀몸노인 245만 시대…고립된 노후, 커지는 돌봄 공백 _2026.8.3.
④ 사기에 울고 폭력에 피멍…노인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_2026.8.6.
⑤ 돌봄이 무너진 노년…'독박 돌봄'과 초고령 자살의 비극 _2026.8.10.
⑥ "아파도 내 집에서…" 존엄한 노후의 조건은 _2026.8.13.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윤성훈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횃불재단, 기아대책, 넥스트목회교육원,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정책연구소,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읍, 크리스챤타임스, 퓨처처치연구소(FCI),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①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②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 없는 분은 아래 계좌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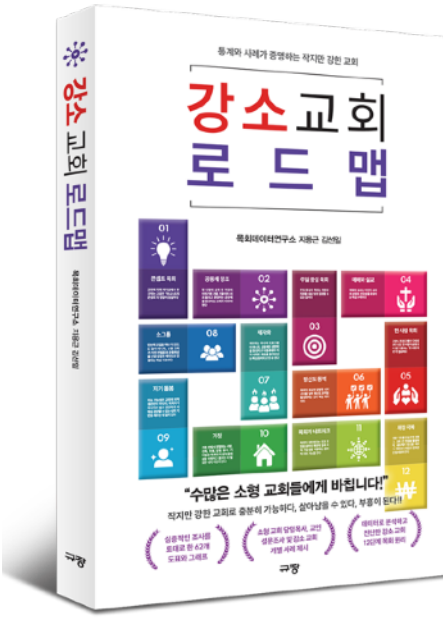
PayPal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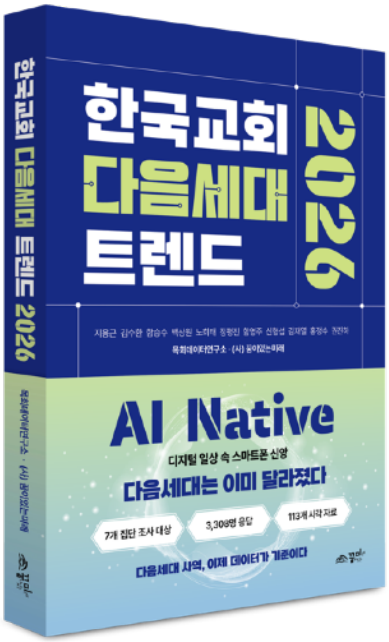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강소교회 로드맵」 (출간일 : 2026.06.30.)

오늘날 한국 교회 다수를 차지하는 소형교회가 작지만 강력한 '강소교회'로 나아갈 실천적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소형교회 담임목사·교인 설문조사 데이터와 생생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강소교회의 12가지 목회 원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교회 다음세대 트렌드 2026」 (출간일 : 2026.05.20.)
((사)꿈이있는미래 공동 출간)

다음세대 사역의 10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해 국내 최초로 학생, 부모, 교사, 사역자, 담임목사 등 총 7개 집단(총 3,308명)을 동시에 다면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책으로 다음세대 사역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책 구입 안내

목회데이터연구소 출간 도서

※ 책 구입 문의 : 02-322-0726, 유영민 간사

「한국교회 트렌드 2026」(희망친구 기아대책 공동 출간)

2026년도 예상되는 한국교회 이슈와 트렌드 10가지를 주제로 선정하였는데, 이 책이 목회 전략을 수립하는데 올바른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 성도를 총 1,320명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책 구입 안내 책 소개 영상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 5대 영역별(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로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조사를 통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책 구입 안내

「2025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후원자 배포)

- 2025년 작년 한해 동안의 매주 발간된 〈넘버즈〉를 모아 엮은 책으로 후원자에게만 배포하는 비매품입니다.
- 한국사회 변동상황과 교회 변화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공지

라잇나우미디어 8월 웨비나

라잇나우미디어에서 8월 [데이터로 읽는 한국교회, 디지털 목회 전략 웨비나]에 목회자님을 초청합니다.

1) 일정 : 2026년 8월 24일(월) 14:00~16:00
2) 강사 : 나도움 목사(스탠드그라운드 대표, [AI 감각 수업] 공동 저자)
3)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4) 참가비 : 무료
5)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온라인 양성 과정

라잇나우미디어에서 목회자님을 위한 소그룹 리더 양성 과정을 진행합니다.

1) 일정 : 2026년 8월 27일(목) 19:00~21:50
2) 대상 : 소그룹 리빌딩을 원하시는 목회자님, 기관의 리더님
3) 강사 : 우명훈소장(세바시연사 코치)
4) 장소 : Zoom(신청자에 한해 링크 발송)
5) 참가비 : 3만 5천원 (구독 교회는 2만원)
6) 신청/문의 : 1533-7104

신청 링크

Addr.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00 기독교TV멀티미디어센터 9층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